

평생 부처님 법대로 산 큰스님들

불기협,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의 대종사들' 펴내

얼마전부터, 나라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대통령에서부터 대법관, 국회의원, 교육감, 교장에 이르기까지 귀감이 되어야 할 사회지도층이 국민의 손가락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아래가 모두 혼탁한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면 세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시대의 참다운 어른들이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평생 부처님 법(法)대로 살아온 큰스님들이 바로 그 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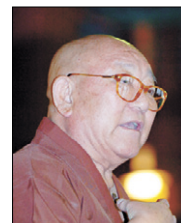
법전 스님.



중산 스님.



설정 스님.



무진장 스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가 창립 20주년 맞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 30인의 수행담을 소개한 <한국의 대종사들>을 펴내 화제다. 조계종 '대종사(大宗師, 비구)'와 '명사(明師, 비구)'라는 최고 법계(法階)를 품은 스님들은 40년 이상을 수행 정진하며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살아있는 선지식들이다. 생명의 존엄성마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이 시대, 태산처럼 흔들림 없고 바다처럼 넓은 스님들의 도(道)와 덕(德)에 절로 안도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희망'이었다는 소식이 아닐까.

대종사 27인과 명사 3인은 이미 일흔의 세수를 훌쩍 넘겼지만, 공통적으로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과 목소리를 지녔다. 그리고 스님들은 한결 같이 새벽 두세 시에 일어나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참선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서 젊은 시절 수행이 어려웠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국의 사찰 곳곳에서 취재를 하는 가운데 몇몇 기자들은 언론 노출을 달가워하지 않는 스님들로 부터 "뭐 하러 내려왔느냐", "인터뷰 안할란다.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며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기왕에 왔으니 차나 한잔하게"라는 말씀에 한시를 놓고 조심스럽게 듣고 들기를 거듭한 끝에 겨우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한겨울 다섯 되의 쌀이 떨어지기 전에 공부를 마치든가, 죽든가 돌 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일념으로 암자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매진했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수행 일화를 비롯한 선지식들의 수행담은 불자들의 밤잠을 되살린다. 그 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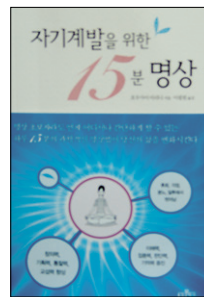
매일 법문을 한 무진장 스님 등 대종사들이 떨어 놓은 출가수행의 길은 치열함 그 자체였다. 이제 그들은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어른으로 뜻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우리 시대 정신적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큰스님들의 법문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는 화두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것,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일체 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을 지니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일상속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참다운 성품을 찾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닮아가는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을 살아가 하느님 이상도 아니라는 말없는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책 서문에서 불교기자협회 안직수 회장은 "대종사 선양 작업을 통해 수행 가풍을 세우고 일반인에게 한국불교의 우수함을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종사들 | 한국불교기자협회 | 조계종출판사 | 1만8000원 김성우 기자

'명상'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하나의 기술

호우사이 아리나, '명상·M만트라 제시



일본의 명상지도자 호우사이 아리나씨가 쓴 <자기계발을 위한 15분 명상>은 명상법의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설명한 책이다.

"명상은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하나의 기술(technique)"이라 주장하는 저자는 자신이 장안한 명상법인 '명상'과 'M만트라'를 제시한다. '명상'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번뇌방상이 없는 無念의

상태를 의미함)에 이르기 위해서 'M만트라'(음 남 스바하)를 사용해 편안하게 명상하는 것. 즉, 무의식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명상이다. 저자는 "명상으로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알게 되면 집중력, 이해력, 판단력이 증진되고 기획력, 창의력, 통찰력이 향상된다"면서 "뇌기능이 향상 되어 마음의 힘이 커지면 사고의 패턴을 바꾸는 힘이 강해진다"고 주장한다.

자기계발을 위한 15분 명상 | 호우사이 아리나 저, 이필원 역 | 불광 | 1만원 김성우 기자

삶에 대한 감사·행복·희망 우학 스님 '명상일기' 펴내



간화선을 응용한 선관쌍수(禪觀雙修)로 수행을 지도해온 우학 스님(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이 무상한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 희망에 대한 명상의 말씀을 전하는 <無-우학스님의 명상일기>(전2권, 좋은인연을 펴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학 스님의 일기를 읽다 보면 명상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자연, 수행, 부처님, 그리고 다시 본인의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無-우학스님의 명상일기 | 우학 지음 | 좋은인연 | 2만 4000원 김성우 기자

불교방송 부처님 법음 모아 바른신행·수행 지침서



불교방송(사장 김영일이)이 개국 20년 동안 B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루도 쉬 없이 인기 탠런트 김용림씨의 낭랑한 음성으로 전해준 부처님 법음을 모아 <신행 365일>을 펴냈다.

이 책은 경전과 어록의 법문을 쉽게 365일 날짜별로 재미있게 풀이한 예제이집으로, 진리를 바로 보고 바른 신행과 수행에 매진하는데 필요한 신행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 김용림씨는 "불교인으로서 신행생활에는 부끄러움이 많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행 365일'을 진행하곤 마음"이라고 전했다.

신행 365일 | 불교방송 마케팅국 | 불교방송 | 1만원 김성우 기자

불교를 세계종교로 만든 아소가 왕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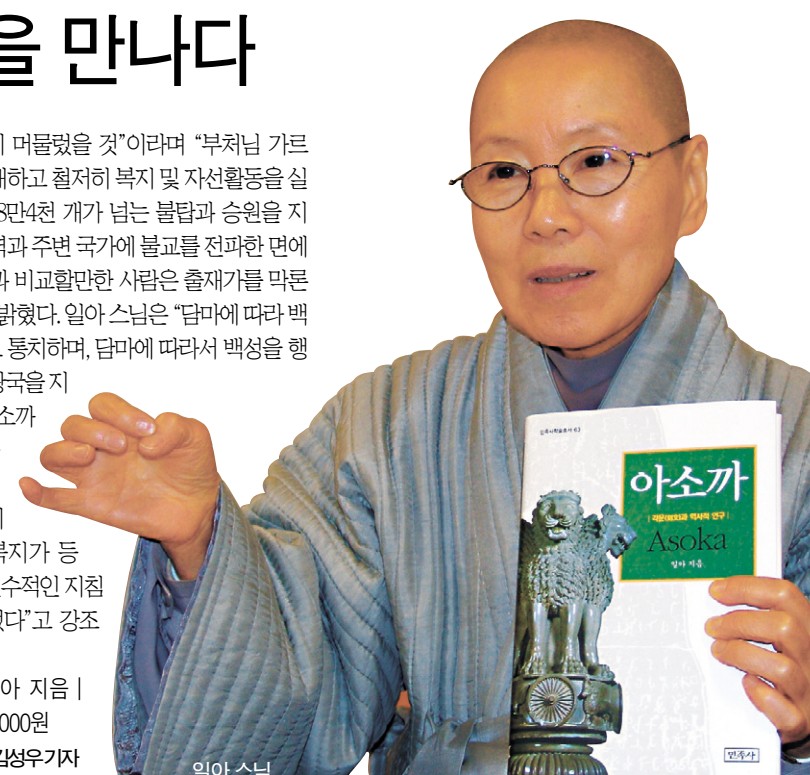
일아 스님, '아소가-각문과 역사적 연구' 펴내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누구일까. 인도 국기에 등장하는 법륜상과 인도의 여권이나 화폐, 우표 등에 사용되는 국가 문장(紋章)에 보이는 사자상과 법륜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불교가 세계종교로 성장하는 초석을 놓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 답은 바로 불교역사상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포교사로 손꼽히는 아소가 왕이다. 부처님 열반 후 약 200년, 기원전 250년에 통일 인도를 통치한 아소가 왕은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왕이기도 하다. 전쟁 대신 국민의 행복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 다양한 복지활동과 자선활동을 실천한 탁월한 정치가, 행정가, 건축가이자 출가승 이상의 성자였던 아소가 왕은 2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바위와 돌기둥에 새긴 각문을 통해 진정한 전문성왕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해 말 <한걸음 읽는 빠알리 경전>으로 주목받은 수녀 출신의 일아 스님이 이번에는 <아소가-각문(刻文)과 역사적 연구>를 펴냈다. 미국 LA 로메리카(Lomelica)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한 일아 스님의 오랜 연구 성과를 담은 이 책은 아소가 왕의 일생과 그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함께 판독 가능한 38개 각문을 완역하고 국내외 연구성과를 자세히 다뤘다. 특히 감동적인 아소가 각문에서 말하는 담마 '아소가 법칙'이라 번역되고 빠알리 경전에 나타난 담마를 비교해 양자가 똑같은 흐름임을 증명했다. 아소가 각문의 핵심이 자선 활동과 복지활동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아소가 왕이 남긴 유산과 인도에 끼친 영향도 분석했다.

된 지방종교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복지 및 자선활동을 실천한 점에서, 8만4천 개가 넘는 불탑과 승원을 지으며 인도 전역과 주변 국가에 불교를 전파한 면에서 아소가 왕과 비교할만한 사람은 출제자를 막론하고 없다"고 밝혔다. 일아 스님은 "담마에 따라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며, 담마에 따라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왕국을 지킨다고 한 아소가 각문은 불자는 물론 이 시대 모든 정치인, 행정가, 복지가 등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지침서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아소가 | 일아 지음 | 민족사 | 2만5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3	누구 없을까	법전	김영사
4	사는 즐거움	보경	돌
5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미음선원
8	부처되는 공부	우학	돌
9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10	인도에 갈 때는 손가락을 가져가세요	대연	이스트위드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안 잡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구법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전동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유기농 素

-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중앙대사전, 당분초, 영남재약학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전동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거제도 총명사 이미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질정탱화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뀌드립니다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 ◆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 불사상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PC고건축·시찰문·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